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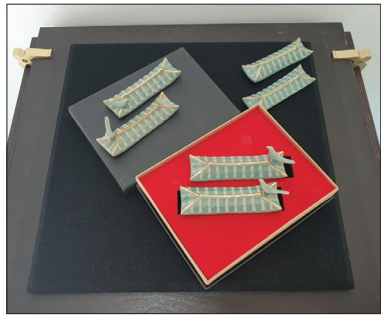
인천공항에 부안청자 전시·홍보한다

부안관요 청자한옥 수제받침, 한국문화재 재단 수탁상품 선정... 국회·경복궁 등에 입점

한국문화재 재단이 주관하는 우수문화상품 발굴 수탁상품 공모심사에 부안관요의 청자상품이 선정되어 인천공항, 대한민국 국회,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등에 입점되어 국내외 홍보는 물론 판로개척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으로 문화유산의 전승·보급·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이번 공모심사는 우수문화상품 발굴을 위한 세가지 주제로 한국의 문화유산, 대한민국 국회, 어린이 문화유산 상품으로 공모가 과제가 주어지며, 선정된 상품은 한국문화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국적 문화가 녹아있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출품된 청자는 부안청자박물관 '부안



부안관요 청자한옥 수제받침

관요 김문식 도예가를 비롯한 사기장들이 제

작한 한국의 전통 주거공간인 한옥을 모티브로 한 청자한옥 수제받침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고, 전통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제작한 부안관요의 대표적인 청자상품을 출품했다.

부안관요에서는 고려시대 전통기법으로 청자를 제작했던 과정들을 보존하고 이를 기록화하여 사라져가는 한국의 청자문화를 보존하고, 청자의 전통기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청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 부안청자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국제무대로의 진출 및 청자의 고급화와 다양성을 발굴하여 부안상감청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31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 개최

국립전주박물관서 17일~10월 15일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직무대리 김구영)은 7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상설전시관 로비에서 '제31회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 서일초등학교 3학년 윤시호 학생 '움직일 것만 같은 물고기'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전북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제30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로 꾸며지는 이번 그림전은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재현된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최우수상에 선정된 전주 서일초등학교 3학년 윤시호 학생의 '움직일 것만 같은 물고기'를 비롯해 우수상 6명, 특선 18명, 입선 25명 등 총 50명의 입상작 중 특선 이상의 수상작 25점을 선보인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입상작은 창의적이면서도 실감나게 문화재를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됐다"면서 "대회 당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된 문화재를 보고 도내 초등학생들이 그린 작품인 만큼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림 솜씨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전북대 이야기연구소, 고전문학과 지역 이야기 인문학 강의 마련

전북대학교 이야기연구소(소장 김기종)가 전북 지역과 관련된 설화 등을 색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접근해보는 호남학 강의를 마련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야기연구소는 7월 15일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2개 강의씩 총 8개 주제의 호남학 강의인 '전대지23'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강의는 한국호남학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북대 이야기연구소가 주관하는 지역 이해 강의 프로그램이다.

'전대지'란 전문성·대중성·지역성의 줄임말이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8개의 강연에는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 전공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해 고전문학과 전북 7개 지역

(익산·완주·무주·고창·임실·정읍·진안)이 갖고 있는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 흥미로운 강의가 이어진다. 또한 20대 지역인재들이 참여해 현장토크가 진행되고,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온라인 줌(zoom)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강사진의 전문성과 20대 지역 인재들이 참여하는 대중성, 그리고 전북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역성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이야기연구소(063 219 5684)나 인스타그램(@jnu_storyl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호남학 강좌프로그램

전대지23

전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전문성과 대중성, 지역성까지 모두 담은 알찬 강연!

- 수강대상: 전북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수강기간: 2023년 7월~10월, 한 달에 2강 (총 8강)
- 강연시간: 오전 10시~오후 12시
- 강연장소: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10호

주최: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 주관: 전북대학교 이야기연구소



전라북도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는 12일 전북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상상'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맞는 박물관·미술관 발전방안 논의

전라북도 (사)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회장 박현수)는 12일 전북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상상'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 최병식 위원장(전 경희대학교 교수)이 '뮤지엄의 뉴패러다임과 뮤지엄의 변화'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노기환 학예연구관과 교동미술관의 정하나 부관장이 '전북지역 박물관의 현황과 미래', '2023 뮤지엄의 역할과 수행과제'를 내용으로 각각 전라북도 박물관과 미술

관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은 박현수 회장(사단법인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이 좌장을 맡아 정상기 학예연구관(문화체육관광부)과 김미진 부장(전북도민일보 문화교육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역할과 상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상상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논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박물관 미술관인들이 각자의 시설에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주문화재단, 공유화음실 정기대관 단체 21일까지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21일까지 '공유화음실' 정기대관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관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면 지원 가능하다.

12일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전주 동문거리에 위치한 '공유화음실'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림과 음악 등 문화예술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되었다.

또한 강좌를 할 수 있는 강의용 테이블과 의자, 음향 시설이 있으며 소규모 그림 전시도 가능하다.

/장은성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객 평가위원 10명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5일까지 2023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객 평가위원 1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관객 평가위원의 주요 활동은 공연 관람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평가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선정된 관객 평가위원에게는 소정의 평가비와 포도북 및 초대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jctpr@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